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가사 분담과 출산 선호도

Domestic division of labour and fertility preference in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 Man-Yee Kan, Ekaterina Hertog, 2017, Demographic Research, 36(18), pp.557-588.

대체출산율 수준 아래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산업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을 여성의 막중한 가사 노동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남성의 가사 참여가 출산아 수와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횡단면 사회조사인 2006 동아시아 사회조사(2006 East Asi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별, 국가별 가사 참여 정도와 국

가별로 출산한 아동 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산아 수에 대해 집계 자료를 산출해 분석하고,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가사 분담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산아 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적어도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했고, 가사 참여 정도를 변수로 정했다. 그리고 출산 선호도에 대한 직접적인 측도가 없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응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출산아 수 계획과 선호도를 변수로 설정했다.

4개국 모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 노동을 훨씬 많이 한다. 4개국 남성은 가사 참여와 출산 선호도에 대한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남성이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할 경우 여성이 더 많은 아이의 출산을 바란다.

가사 노동은 특히 일본에서 성별 계층화가 뚜렷해 여성은 대부분 청소, 요리, 세탁을 담당하지

만 남성은 정기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리고 4개국의 출산 선호도에 대한 국가별 패턴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부부는 대만과 중국의 부부보다 아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의 가사 노동 정도와 아이 수에 대한 선호도는 연관 관계가 있다. 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가사에 많이 참여하는 대만, 일본, 중국의 남성들은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한국의 남편들은 가사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아이를 적게 갖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에 따른 가사의 상대적인 부담이 남성의 선호도에는 체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4개국 남편의 가사 참여는 여성이 선호하는 출산아 수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여성은 가사 노동이 증가하면 더 적은 출산아 수를 선호한다. 그리고 가사와 출산 선호 사이의 연관성은 4개국 모두에서 나타나며 남편의 가사 참여 증가는 아내의 더 많은 아동 선호와 관련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사와 노동시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선호와 가사 책임 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연기금과 주식시장과의 관계: 유럽의 인구 고령화는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funds and the stock market: Does the aging population of Europe affect it?

Mercedes Alda, 2017,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49, pp.83-97.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구 고령화와 서구 공적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연기금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연기금은 주식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저자는 인구 고령화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구학적 변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고령화의 효과는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최근 세계 경제 위기는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의 특성상 안전자산을 선호하여 주식시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유럽 국가의 연기금이 주식시장 개발과 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여러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연금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기금 규모와 연기금의 주식 투자 자산 규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에서는 주식 지수, 월드뱅크(World Bank)의 세계개발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국내총생산(GDP)과 고령인구 비율 등, 유로스타트(Eurostat)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고령인구의 연령 구간별 인구 비율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전 연구와는 달리 연기금 자산이 주식시장에 투자된다는 것만을 고려하여 연기금 투자가 주식시장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연기금의 발전이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 된 국가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국가들은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많은 적든 간에 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식 연기금의 성장은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15~64세의 인구가 증가할 때 연기금의 성장은 주식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 자체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증가할 때 연기금과 주식시장은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퇴직을 위한 저축에 대한 우려가 커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위험 프로파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일부 노인 그룹에서는 주식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암 진단 자료를 통해 살펴본 가족 내 건강과 근로에 대한 실증 분석

Health and Work in the Family: Evidence from spouses' cancer diagnoses, Sung-Hee Jeon, R. Vincent Pohl,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2, (2017), pp.1-18.

건강 상태의 변화는 변화의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가 건강상의 증상으로 인해 소득 창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배우자와 기타 부양가족의 재정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근로 연령대의 자녀들은 아픈 가족 구성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자신들의 노동 공급 시간을 줄이거나 반대로 소득 보전을 위해 노동 공급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가구 수준에서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비하고자 소득이 많을 때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것(역자 주)]과 자가 보험[self-insurance: 안 좋은 경우에 대비하는 일종의 준비금 설정과 같은 것(역자 주)] 때문에 가족 중 어떤 구성원에 대한 건강 증상의 재정적 영향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저자들은 캐나다를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하여 한 배우자의 암 진단이 다른 배우자의 고용과 소득 및 전체 가족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아픈 경우 다른 가족들의 노동 공급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픈 구성원의 손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추가 근로자 효과(added worker effect)'와 아픈 구성원을 보살피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노동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간병인 효과(caregiver effect)'가 그것이다. 사실 배우

자가 크게 아픔을 겪고 난 후 부부가 같이 여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경우 여가의 상보성(the complementarity of leisure)을 반영해 노동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저자들은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배우자의 노동 공급 결정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데이터의 가용성인데, 가족 구성원 개인의 건강 충격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족 구성은 데이터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가족의 경제적 삶의 만족도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병원 기록과 같은 행정 데이터에서 질병을 앓는 개인의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구득할 수 있지만 이들 개인의 가족 구성 정보는 대개 구득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세트를 병합해 구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인 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s)를 고려한 이중차분모형(DID model)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노동 공급 특성, 그들의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시불변적 관찰이 불가능한 개인의 특성 간 잠재적인 상관관계를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암 진단이 다른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암 진단과 같은 처치변수가 강한 외생적 건강 충격일 경우 회귀분석 결과는 바로 인과적 영향

(causal effect)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종속변수, 개인의 노동 공급 관련 특성(종사상 지위, 연간 근로소득이거나 가구 총소득), 개인의 시변 특성, 처치 효과를 반영한 배우자의 암 질환 여부 더미변수, 시불변 개인 고정효과를 고려한 방정식을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와 이론들을 종합하면 배우자의 건강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 배우자의 암이라는 건강상 충격에 대한 개인의 노동 공급 감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가구 총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간병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건강상의 충격으로 인한 재정적 부(-)의 결과가 상당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중차분모형 구축과 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메디케이드와 가구지출, 구축 효과의 재정적 함의

■ Medicaid, family spending, and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crowd-out, Marcus Dillender,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3 (2017), pp.1-16.

건강보험의 주요 목적은 (갑작스럽거나 액수가 큰) 일련의 의료 지출 위험(medical expenditure risk)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것

이다. 저소득층 개인에게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는 가족의 지출 패턴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소비 지출 조사(CEX, Consumer Expenditure Survey)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23%가 분기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있었으며,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44%가 분기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인 가구의 38%가 분기별 건강보험 지출 내역이 있는 반면, 메디케이드 혜택이 없는 가구는 73%가 건강보험 지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언급한 수치들은 메디케이드가 가계에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의료 및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높은 가난한 가족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자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큰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주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놀랄 만큼 없다는 Buchnueller et al.(2015a)의 관련 연구 동향 리뷰 결과를 밝히면서 메디케이드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메디케이드의 극단적인 지출 사례나 메디케이드가 파산, 경매를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한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메디케이드 자격 여부가 가족 지출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지출 효과의 복지 측면에서의 함의를 고려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가족 구성원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여부가 가구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과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의 도구 변수 전략(simulated instrumental variables strategy)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구성원의 추가적인 메디케이드 자격 여부는 가족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0.135-0.142(추정치) 정도 증가시키고, 가구의 분기별 의료비 지출 확률을 2.7% 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디케이드 혜택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적 적용 범위를 구축하는(crowd out)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보험에서 메디케이드로 이동하는 가족은 건강보험 비용 지출이 확연히 줄어들며, 이는 비록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가 가족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 변수 적용 관련 2SLS 분석 방법과 분석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영국의 성인을 위한 시설 돌봄의 준시장: 영리, 비영리, 공공 부문의 시설 돌봄과 요양원이 더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가?

The quasi-market for adult residential care in the UK: Do for-profit, not-for-profit or public sector residential care and nursing homes provide better quality care?

■ Barron, D. N., & West, E. 2017. Social Science & Medicine, 179, pp.137-146.

지난 40년 동안 성인에 대한 시설 및 요양원 돌봄의 제공 체계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까지는 성인 시설 보호의 80% 이상이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었지만, 현재 공공 부문 시설은 8%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영리회사(74%)와 비영리단체(18%)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공 부문의 역할은 구매자(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함)와 규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 기업들이 미래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영국에서는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반면, 시설 및 요양원 돌봄의 변화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돌봄의 질에 대한 우려는 심층적인 언론 보도, 스캔들, 형사고발들로 인하여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의 대규모 전환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에서 공공, 비영리, 영리 시설들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산업규제기관인 돌봄 질 협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에서 제공하는 1만 5000개 이상의 가정에 대해 조사한 돌봄서비스 질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1년 4월에서 2015년 10월 사이에 수행된 조사 결과이다. 설립 기간, 규모와 같은 시설의 특징들을 통제하고, 비례승수 로지스틱 모델(proportional odds logistic regression)로 분석한 결과, 영리 시설들은 안전,

효과성, 존중, 리더십 등을 포함한 측정치들에서 공공 및 비영리 시설들보다 품질 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 영리 제공자의 역할과 관련해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대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